

“외가의 비극”이 나를 시인으로 만들었죠”

첫 시집 펴낸 정지우 시인
어머니 6·25때 가족 잃어
‘정원사’ 모티브 고통 극복
고향 구례서 창작 힘 얻어



정지우 시인

시인은 타고나기도 하지만, 만들어지기도 한다. 저절로 창작성이 발현돼 뛰어난 작품을 쓰는 이도 드물게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오랜 습작과 연마의 과정을 거쳐 비로소 ‘시인’이라는 직함을 단다.

시인이 넘쳐나는 시대라고 하지만, 시가 읽히지 않는 시대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시인을 꿈꾸는 이들은 적지 않다. 가장 오래된 문학 장르인 시는 누구나 한번쯤 써보고 싶은 글인지 모른다. ‘누구나 시인으로 태어났다’는 말이 있듯이 시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거나 들춰낼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글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시인들 가운데는 자신의 상처나 가족의 아픔이 계기가 돼 시를 쓰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시인의 길로 들어서게 된 가장 고전적인 배경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고통과 아픔, 슬픔 같은 감정을 글로 승화하기 위해서다.

구례 출신 정지우(49) 시인도 마찬가지다. 지난 2013년 문화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해 이번 첫 시집 ‘정원사’를 바로 아세요(‘민음사·사진’)를 펴낸 시인에게도 남모름 아픔이 있다. 작품집 발간 이후 전화로 나는 인터뷰에서 시인은 내면에 드리워져 있는 고통의 실체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6·25와 관련해 외가 쪽에 크나큰 아픔이 있었어요.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 그리고 이모가 당시에 사촌(빨치산)을 숨겨줬는데 누군가 밀고를 했나 봐요. 불행하게도 발각이 돼 대나무밭에서 그만... 그렇게 한 날 한 시에 가족을 잃은 저의 어머니는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사셨어요.” 정 시인은 그 같은 이야기를 어머니에

게서 들었다. 무엇보다 가슴 아픈 것은 당시 결혼을 앞두고 있던 이모는 혼수를 준비한 상태였다. 정 시인은 “이모가 준비한 혼수로 결혼을 해야 했던 어머니는 제정신이 아니었다”며 “외가의 비극이, 어머니의 고통이 저에게 전이돼 오늘날 제가 시를 쓰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월호처럼 많은 사람의 죽음이 별개의 사건 사고가 아니라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시인은 삶의 고통과 절망을 ‘정원사’라는 모티브로 극복해내고자 하는 의지를 펼쳐낸다. 표제시 ‘정원사를 바로 아세요’는 그 같은 면모를 볼 수 있는 작품이다.

“새로운 꽃말은 두 그루에서 유래했을 거예요/ 피복엔 안목이/ 길을 잃고 정처없이 떠돌다가 남풍을 품고 돌아올 때 비로소 나무가 되지요/ 잘생긴 관상은/ 젊은 봄으로 되돌아가는 길을 알려 주고/ 고개를 끄떡이게 했기 때문이래요// 한 씨앗에서 방들이 열리지요/ 아름다운 이복형제를 관리하는 정원사를 바로 아세요”(‘정원사를 바로 아세요’ 중에서)

정 시인은 ‘정원사’는 “시인이면서 아버지이기도 하다”고 설명한다. 식물은 가꿔서 변화를 주는 대상이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식물도 무한대로 늘리면 늘릴수록 다채로운 동작과 서정을 보여주는” 생명체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시인은 “식물의 속을 흐르는 수액을 시로 끌어온 정원사”에 다름아니다. 시적 화자의 정원사에 대한 인식은 아

비지의 죽음을 소재로 한 ‘마의 구간’에서도 엿볼 수 있다. “오늘의 죽음은 너희들 뒤편으로 남겨 두고 떠나는 마지막 일이다”에서 보듯 죽음이 삶을 격정하는 것으로 묘사돼 있다. 대개의 경우 죽음에 대한 인식이 망자와 함께 있다는 의미로 상징된 것에 비해, 화자는 망자가 산자들을 격정하는 것으로 형상화함으로써 ‘정원사’의 상징을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

정 시인은 오랫동안 습작기를 거쳤다. 시인이 되고 싶다는 꿈을 꾸는 것은 오래됐지만 정작 문단에 얼굴을 내민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오랫동안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경희사이버대학교 문창과에 진학해 공부를 하면서 시에 눈을 뜨기 시작했지요. 신춘문예를 목표로 두고 창작을 했지만 번번이 떨어졌어요. 유력 일간지 최종심에서 떨어질 때마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노력을 한 결과 마침내 마흔 넷에 2013년 문화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된 게 된 것이다. 그녀는 “저보다 더 늦깎이들도 많이 있다”며 “자신만의 색깔로 글을 쓰다 보면 반드시 당선될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시인은 고향에 계신 어머니를 보러 자주 구례에 온다고 한다. 어머니를 통해 창작의 힘과 에너지를 얻는다는 것이다.

“겸손한 자세로 시를 쓰고 싶어요. 무엇보다 저만의 방식과 저만의 빛깔이 드러나는 시를 쓰고자 합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문화읽기



김동태 소설가

광주의 문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들이 더불어 발전해야 한다. 작가들이 양질의 책을 써내는 게 전제조건이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작가들이 수도권으로 떠나는 경우가 잦다. 나 같은 신인 작가들일수록 기회가 많은 서울은 매력적이다. 원고청탁, 창작 강의, 창작 활동 지원, 독자와의 만남, 또래 작가들과의 교류 등 서울로 떠나야 할 이유는 많다. 반면 남야 할 이유는 찾기가 쉽지 않다. 우리 지역의 중견, 원로 작가들은 광주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경희사이버대학교 문창과에 진학해 공부를 하면서 시에 눈을 뜨기 시작했지요. 신춘문예를 목표로 두고 창작을 했지만 번번이 떨어졌어요. 유력 일간지 최종심에서 떨어질 때마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사실 앞서 말한 유망한 지역작가들의 유출은 꽤 오래전부터 있었던 현상이다. 젊은이들이 기회를 찾아 떠나는 건 문학 분야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은가. 이제 문학을 거론할 때는 작가가 아니라 독자에 주목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SNS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

른다. 이는 책을 구매하는 과정에도 소용이 있다. 정보라는 범주라면 본다면 책 또한 범람하는 정보를 다루는 매체 중 하나일 뿐이다. 그렇다면 나에게 필요한 책은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다소 불편하더라도 책은 오프라인 서점에서 사길 권한다. 오프라인 서점 중에서도 최근 늘고 있는 동네책방을 추천한다. 광고비와 판매량에 의해 노출 횟수가 결정되는 온라인서점에서는 독자의 선택 폭이 좁다. 온라인서점보다는 달하지만, 대형오프라인 서점 역시 베스트셀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에 동네책방이 대안이 될 수 있다. 광주에도 제법 많은 동네책

사색에 중독되기

다. 기존의 문학 작품들의 평판이 평론가 중심으로 형성됐다면 앞으로는 독자의 평가가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평가가 절대적으로 옳은 것일 수는 없다. 다만 내가 주목하는 부분은 독자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현상이다. 이에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문학의 앞날은 독자들에게 달려있다고 말하고 싶다.

몇 해 전 학원에서 독서논술을 가르친 적이 있다. 독서논술을 지도하며 만난 학부모들은 하나같이 불었다.

“우리 아이가 책을 안 읽어요. 어떻게 하면 책을 많이 읽게 할 수 있을까요?”

요즘 아이들 방을 보면 책장 가득 책들이 꽂혀 있다. 책으로 둘러싸여 있으면 책을 많이 읽게 될까? 내 생각으로는 읽지 않는 책에 둘러싸여 있다는 건 책의 무덤에 갇혀 있는 꼴이다. 아이들이 노출되어야 하는 환경은 책의 무덤이 아니라 책이 살아 숨 쉬는 곳이다. 그런 장소로는 일단 도서관과 서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장 접근성이 편리한 공간은 집이다. 부모 스스로 아이 앞에서 책 읽는 모습을 자주 보여줄 필요가 있다.

바이흐르 정보화 시대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범람하는 정보가 아니라 그 정보들 속에서 불필요하거나 거짓 내용을 걸러내는 능력일지도 모

방이 있다. 자녀와 함께 가지. 아이들이 독서를 공부라 아닌 즐거운 놀이로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비단 아이들이 아니라 성인 독자도 마찬가지다. 독서가 즐거워지기 위해서는 의미를 강제해서는 안 된다. 아이가 독서 후 책의 주제와 동떨어진 생각을 말하더라도 그건 아이가 사색한 결과물이다. 그리고 그 사색이아말로 독자가 주는 궁극적인 보상이다. ‘사색의 대응품에 불과한 것, 그것이 바로 독서다.’

쇼펜하우어는 독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다소 거칠게 드러낸 바가 있다. 그는 능동적인 독서를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책을 읽는 행위는 느리게 정보를 습득하는 행위다. 행간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천천히 따라가다 보면 그와 관련해 읽는 이의 생각이 보태진다. 그렇게 스스로 사유하는 힘을 길러주는 게 독서의 본질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느끼는 즐거움은 여타 매체를 통해 얻는 즐거움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사색에 중독된 아이들이, 사람들이 많을수록 문학의 미래도 많다.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가락에 담긴 희로애락

내일 임방울국악진흥회 공연

임방울국악진흥회는 오는 9일 오후 5시 5·18 기념센터 대동홀에서 ‘우리 국악의 희로애락’ 공연을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가족, 회원 그리고 광주시민을 등을 대상으로 펼쳐진다.

첫 번째 무대는 지난해 임방울국악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김연옥 명창이 민주화운동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가족과 회원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진도 씻김굿 중 재석공연으로 서막을 연다. 이어 현재 국립장극단에서 활동중인 유태평양 군이 ‘흥보가’ 중 ‘흥보 박타는 대목’을 선사한다.

임방울국악제에서 문화체육부장관상을 수상한 황소희, 유해림 등 5명의 무용수가 소고무를 무대에 올리며 국무총리상 수상자 김승호, 유세운, 김태래, 김준영 등은 전통국악기로 ‘칠갑산’, ‘한오백



유태평양

등을 선보인다.

또 우리 민족의 생활 속에 희로애락을 즐길 수 있는 ‘흥리간 노래’를 선보이며 대통령상 수상자 최연자, 김향순, 주소연, 마미숙 명창과 전 출연진이 남도민요를 무대에 올리면서 마무리한다. 문의 062-673-0732.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산티아고 길에서 되돌아본 내 인생

김숙자 시인 에세이 ‘침묵의 그 길에서 나를 찾다’

“산티아고 순례길은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도전을 겪었고, 행복이었고, 사랑이었고, 추억이었고, 그리움이었습니다.”

곡성 출신 김숙자 시인이 산티아고 순례를 에세이로 담은 ‘침묵의 그 길에서 나를 찾다’(백문사·사진)를 펴냈다.

책은 속도전의 현대사회에서 방향타도 없이 떠돌아 온 각자의 삶을 되돌아보게 한다. 수록된 84편의 글들은 순례자의 오감과 문학적 상상력이 교감한 내용을 담고 있다. 순례길에 관한 묘사, 길에 따라 늘어난 마을 주민들의 풍습, 순례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조언 등은 눈 앞에 현지의 풍경을 옮겨온 것처럼 생생하다.

저자는 “산티아고! 내 삶을 한 번 되돌아보고 싶을 때 한 번 찾아가 보라. 순례의 길은 배낭을 들쳐 메고 도보로만 200



km가 넘는 산과 들을 넘고 걸어야 하는 고행의 길이지만 삶의 내면의 평화와 숨결을 느끼며 넘는 그 거대한 피레네 산맥의 웅덩이는 내게 힘이 되어 ‘내가 흔들리며 살아가는 삶의 길마다 내 가슴에 꽃이 되어 잔잔히 흔들리리라’고 밝혔다.

한편 시인은 ‘월간 문학’ 동시 신인상과 대전일보 신춘문예 동시 당선 등 문단에 나왔다. 한국아동문학회 이사를 역임했으며 한·중 응답샘 아동문학상, 한국아동작가상을 수상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방수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 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시물,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착한보청기협동조합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산수오거리지점
062) 362-3336 돌고개지점